



전업 작가로서는 유시민에게 글쓰기 한 수

수십 년간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필력을 인정받은 베스트셀러 작가 유시민이 자신만의 글쓰기 비법을 공개했다. 사람들은 왜 글을 쓰는가, 좋은 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유시민의 대답에는 그의 일상과 행복, 삶의 태도와 철학까지 담겨 있었다.

취재 김은림(전투리뷰팀 에디터) 사진 리지움(cao studio)

유시민은... 1959년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5년, 학생운동 중에 구속되면서 '홍시'유서를 통해 필력이 알려졌다. '가부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시사평론가이자 '100분토론'의 진행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2003년 정계에 입문한 뒤 10년 뒤인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작가로서 활발히 저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온전히 상대에게 몰입해야 하는 인터뷰 기사를 쓸 때에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단어나 문장이 있고, 이로 인해 중국에는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가 드러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고, 이를 위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영상)을 찍는다. 때로는 침묵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작가 유시민은 이 모두를 '자기표현에 대한 욕망'이라고 정의했다. 넓게 보면 인생 자체는 자기표현의 연속이다. 그리고 정보 통신 혁명을 통해 우리는 보다 쉽게 욕망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찍기만 하면 그것이 곧 기록이자 메시지로 변환되는 시대.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유시민의 최근 저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비법 노트'다.

글을 '잘' 써야 하는 이유

Q: 굳이 인간의 욕망에 빚대지 않더라도 글을 쓰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됐다. SNS를 통한 디지털 소통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회사 업무상 글쓰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수십만 회원을 거느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글이 올라오고, 그중에는 수준급의 글도 상당하다. 블로그나 자신의 SNS를 운영하던 사람이 실제 책의 저자가 되기도 한다. 글을 써야 하는 물리적인 환경,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참고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글쓰기는 내 일이었고,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좀 더 내 글(말)에 흥미롭게 귀를 기울일까 고민하면서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글을 써왔다고 말하는 책인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웃음).

Q: 침묵까지 곁들여 '글을 잘 쓰는 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는 것이 실제 글쓰기 강의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쓴 책 중에 퇴고를 가장 오래한 책이다. 비만인 의사가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 주면 웬지 신뢰가 안 가는 것처럼, 책에는 좋은 글은 이렇게 써야 한다고 말해놓고 정작 내 책이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나. 때문에 원고 분량은 많지 않은데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고쳐 썼다(웃음). 마지막 열흘 정도는 전남 진도에 머물면서 퇴고에만 매달렸다. 표현, 문장의 리듬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한 호흡으로 읽히는 것에 중점을 뒀다. 결과는 그러저럭 만족스러운 편이다.

Q: 한때 '인문학 열풍'이 서점가를 강타한 것처럼, 요즘은 그 트렌드가 '글쓰기'로 옮겨 간 것 같다. 글쓰기와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출간됐다. 앞서 말한 대로 글쓰기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 수요를 인식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다양한 작업에 대한 글쓰기 책을 내놓은 것이고,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초기 단계다. 이 중에 진짜 유용한 책은 살아남을 것이고, 지금은 그 선별 과정이 진행되는 시기가 아닐까.

Q: 소위 SNS로 대변되는 공간은, 우리가 말하는 글쓰기의 본질과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SNS라는 채널의 속성상 한 개인의 내면을 채우고 제대로 소통하는 글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자체를 거부하면서 SNS를 함

오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니까. 하지만 허구와 포장, 자기과시가 포함돼 있더라도 어쨌든 '글을 쓴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글은 항상 쓰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고, 수시로 수첩에 적는 것도 추천한다. 그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을 문자로 붙잡아 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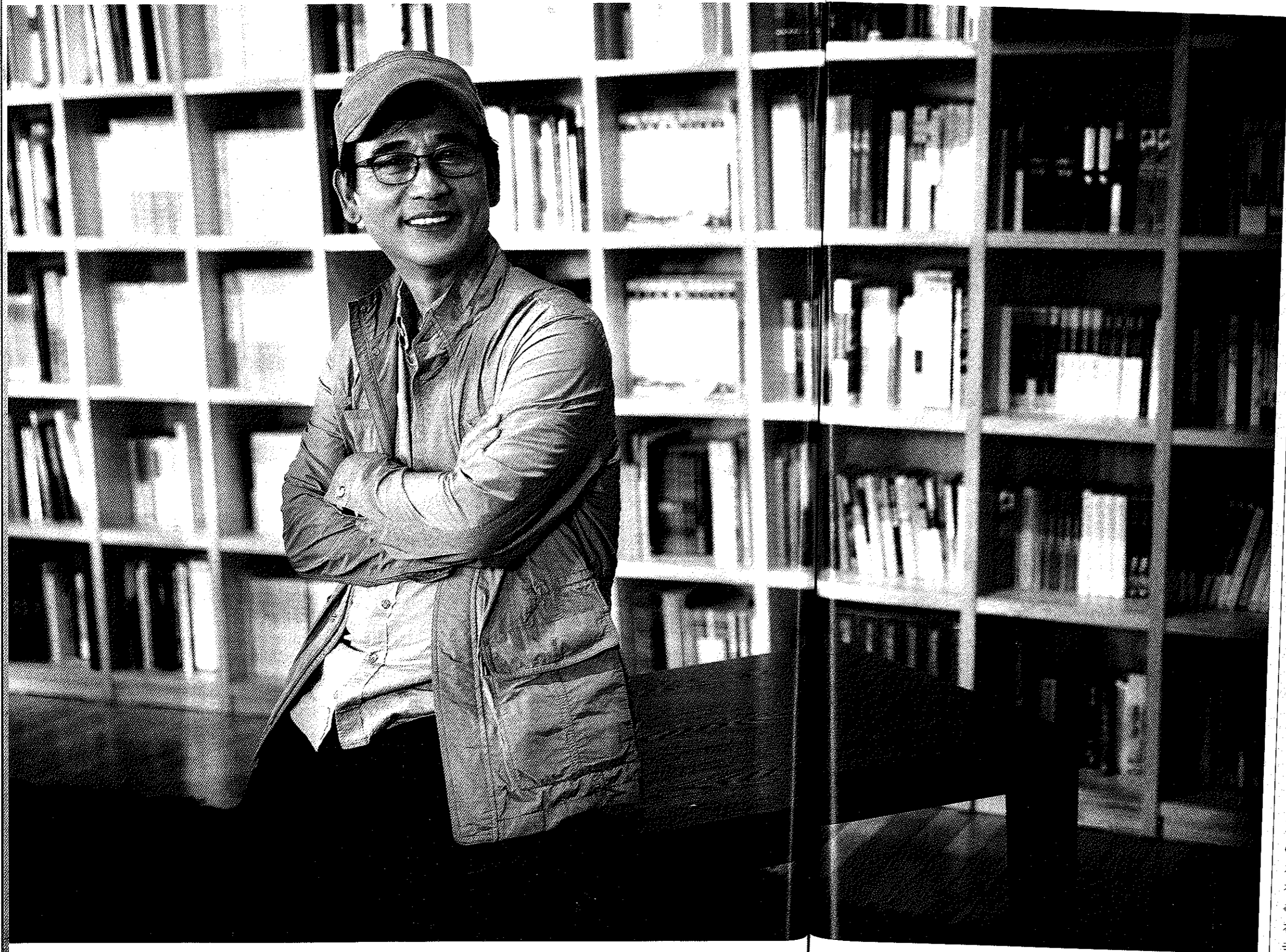
Q: 우리는 글을 왜 써야 하나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큰 의미로 보면 인생 자체가 자기 표현이지 않나. 욕망, 충동, 지향, 이상, 꿈... 우리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며 산다. 글쓰기는 이러한 자기 내면의 것들을 문자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잘 표현하면 만족감을 느끼는데, 글을 쓰는 것은 자기표현의 방법 중 하나인 셈이다. 비록 그 과정이 번거롭고 지루하더라도 나를 잘 표현하게 되면 큰 만족을 느끼고 자기 삶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Q: 자신만의 어법으로 자유롭게 글을 쓰면 안 되나. 꼭 객관적인 형태로 글을 '잘'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바른 단어, 문장, 문단의 개념 없이 자유자재로 계속 쓰다 보면 잘 쓰고 싶어진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키를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폼을 구사하고 싶고, 수렁도 멋있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글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계속 글을 쓰다 보면 당연히 잘 쓰고 싶어진다. 마치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자신을 가꾸고 싶은 것처럼 잘 쓰고 싶은 것 또한 본능에 가깝다. 취미로 글 쓰는 것과 직업으로 하는 건 분명 경계가 있지만 지금은 그 경계조차 완강하지 않다. 생활 글쓰기와 직업 글쓰기의 경계를 오가는 사람이 많다. 모든 경계나 영역은 점점 더 평등해지고 있고, 그것이 순리이다.

Q: 전업 작가로서 작가들의 고유 영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은 없는가 전혀 없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오히려 반가울 정도다. 글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작가들은 살기가 나아진다. 글을 쓰려면 그만큼 책을 많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 소통할 상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글쓰기 책이 많이 팔리는 것과 이에 덩달아 다른 책까지 많이 팔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글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책 읽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읽기와 쓰기에 필요한 '공감 능력'

Q: 흔히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글쓰기와 책 읽기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글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표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뭔가가 내면에 없는데, 기술적으로 글을 잘 쓰는 방법만 터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 쓸 무언가를 만들고, 방법은 그다음이다. 표현할 내용은 없는데 그저 말을 잘 쓴다는 얘기가 듣고 싶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결국 글을 잘 쓸 수 없다. 책을 읽는 것은 표현할 만한 무언가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직접 경험을 통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걸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지식도 쌓인다. 더불어 내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



의 생각이나 관점, 문제의식, 주제 등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높다. 또 자신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지 않으면 잘 쓰기가 어려운 것이다.

Q: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책 읽기와 같은 맥락이다. 다양한 글쓰기 영역이 있는데 나는 주로 타인과 소통하는 글을 써왔다. 내가 처음 글쓰기를 연습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 때 운동권 생활을 하면서부터다. 정치적 선언문 등을 쓰면서 누구한테든 읽혀야 하고, 읽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써야 했다. 목적 지향적인 글쓰기에 단련이 된 거다. '공감'은 이러한 글쓰기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물론 글의 종류에 따라 모두의 공감보다는 각자가 해석할 만한 여지가 큰 글도 있다. 특히 소설이나 시처럼 작가 고유의 창작이 필요한 글은 명확한 메시지나 전달, 공감보다는 철저한 개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결국 독자와 소통하는 글쓰기이다. 글쓰기마다 목적과 작법은 다르지만 '공감' 능력은 글이 생명력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업무, 논술 등의 생활 글쓰기는 더욱 그렇다.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는 글은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기를 쓰지 않는다. 책을 쓸 때도 초고나 수정 원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덜어쓰기'를 해서 최종 원고만 저장한다. 이전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인데,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감정이나 생각들은 그 순간 느끼면 그뿐 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간직하기 위해 쓰는 글은 없다.

Q: 픽션처럼 순수 창작물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나 근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논픽션을 주로 쓰다 보니 이 방식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더라. 예컨대 사회 정의에 대해 얘기하고 싶을 때 논리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감정과 충동이 있다. 극단적으로 죽이고 싶은 정도로 미운 감정이 들 때 이걸 행동에 옮길 수도 없고,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죽이고 싶다고 표현할 수도 없다. 내가 죽이고 싶은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자연인이 체화하고 있는 생활 양식, 감정, 충동, 욕망, 삶의 태도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 미운 건데, 이걸 논리적으로 '그런 것은 나쁘다'고 설명하면 결국 남한테 훈계하는 꼴이 된다. 그건 적절치 않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막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나(웃음). 그래서 요즘 스펀터에 관심이 많다.

Q: 그런 감정을 대리 만족으로 해소해준 작품이 있나 최근 폭 빠져서 본 '미드' 중에 '멕스터'라는 작품이 있다. 연쇄 살인마를 때려잡는 연쇄 살인마의 얘기인데, 이 얼마나 짜릿한 플롯인가. 이성의 측면에서는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이 살인을 저지르면 악이고, 국가가 저지르면 정의인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살인 사